불변의 존재는 없다



新 불교사자성어

㊴ 제행무상(諸行無常)

가을이다. 마른 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구르기 시작하면 왠지 쓸쓸해지고 허무해진다. '인생무상', '가을 알레르기' 가 있는 사람들은 낙엽 소리를 들으면 심장에 구멍이 뚫린다. 그리고 마음에 병이 든다. 신약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 병은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허무(虛無) 병', '가을 병' 이다.

'제행무상' 은 불교의 진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세 가지 진리인 삼법인의 하나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한 것은 없다.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시각각으로 변천해 가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멸(死滅), 소멸한다는 뜻이다.

제행무상은 '존재의 법칙' 또는 '불교적 세계관' 이라고 할 수 있다. 형성된 것, 태어난 것은 시차(時差)의 간격만 있을 뿐 언젠가는 변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불변의 존재는 없다' 는 것이 제행무상의 의미이다. 즉 일체 만물은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것으로 한 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뜻한다.

후기 대승경전의 하나인 〈대반열반경〉에는 '설산동자(붓다) 반게살신(雪山童子 半偈殺身)' 대목이 있다. 게송 즉 시구의 반을 듣고서 감동하여 나찰이라는 흡혈귀에게 자신의 육체를 보시했다(半偈殺身)고 하는 부분이다. 다음은 반게살신장에 나오는 제행무상의 고사(古事) 스토리이다.

고타마 붓다가 히말라야에서 명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공중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제행무상 시생멸법(諸行無常 是生滅法).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것이 곧 생멸의 법칙이다."

고타마 싯다르다(부처님)는 크게 감동했다. '진리의 언어' 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없고 오직 흡혈귀 '나찰' 만이 험악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찰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제행무상 시생멸법' 이라는 시구를 그대가 읊었습니까?"

"그렇소. 여기 나 말고 또 누가 있소?"

"그런데 그것은 반(半) 구절에 불과하고 나머지 구절을 마저 들려주시오."

나찰은 말했다.

"들려주고 싶지만 지금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소. 만일 그대의 뜨거운 피를 준다면 나머지 시구를 들려줄 수 있소."

고타마 싯다르타는 나머지 시구를 마저 듣고 싶었다. 그것이 결어(結語, 핵심)라고 생각했다. 나머지 구절을 듣는다면 육체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朝聞道, 夕死可矣)."라고 말했는데, 직통하는 의미이고 가치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싯다르타는 그 마지막 구절과 자신의 육체를 바꾸기로 했다.

"약속할 터이니 꼭 나머지 게송(시구)을 들려주시오."

그러나 싯다르타는 자기 몸을 보시하고 나면 그 마지막 시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보시하기 전에 먼저 들려 달라고 간청했다.

이윽고 감동적인 나찰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 생멸이 끝나면 곧 고요한 열반의 경지, 그것이 최고의 낙(樂)."

나찰은 말했다.

"자 나머지 시구를 들려주었으니 어서 빨리 그대의 뜨거운 피를 주시오."

고타마 싯다르타는 높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몸을 던졌다. 그런데 나찰은 싯다르타의 몸이 땅이 닿기 전에 인드라(제석천)로 변해서 싯다르타의 몸을 받아서 땅에 내려놓았다.

경전에는 이때 여러 천신들이 모여 싯다르타의 발에 절을 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구도의 정신과 서원을 찬탄하였다고 한다.

이상이 대승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사하는 바는 진리를 구하기 위해, 진리의 한 구절을 듣기 위해 나찰에게 몸을 주었다는 고타마 붓다의 '구도 이야기' 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보수가 삼성 밀어낸 이유는?



격절록 강설

㊴ 제15칙 보수개당(保壽開堂)

[古則과 着語]

擧, 保壽開堂 三聖推出一僧 (萬人眾前 不得不恁麼) 壽便打 (據令而行) 聖云 "恁麼為人 非但瞎却這僧眼 亦瞎却鎮州一城人眼去在" (臨濟猶在) 壽便歸方丈 (兩箇弄泥團漢)

보수(保壽)가 개당설법(開堂, 開堂說法)을 하는데 삼성(三聖, 삼성혜연)이 한 스님을 밀어내자, [만인의 대중 앞이라 부득불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보수가 바로 쳤다. [법령에 의거해 행했다.]

삼성이 말했다.

"이렇게 사람을 위한다면 다만 이 스님의 눈만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주성 사람들 모두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임제(臨濟, 임제의현)가 아직도 있다.]

보수가 바로 방장실로 돌아갔다. [진흙덩이나 가지고 노는 두 사람이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保壽三聖 雖發明臨濟正法眼藏 (那裏得這箇消息來) 要且只解無佛處稱尊 (討什麼椀) 當時這僧若是箇漢 纔被推出 便與掀倒禪牀 (便打) 直饒保壽全大機用 也較三千里" (你已在萬里崖州)

설두가 염(拈)했다.

"보수와 삼성이 비록 임제의 정법안장을 드러내 밝혔을지라도, [어디서 이런 소식을 얻었는가?] 결국은 단지 무불처(無佛處)만 알고, (이를) 최고로 여긴 것이다. [(밥 먹을 때가 지났는데) 무슨 밥그릇을 찾는 거야?] 당시에 이 스님이 만약 이런 사람(是箇漢, 본색 납자, 대장부)이었다면, 밀려나자마자 바로 선상을 엎어버렸을 것이다. [(선상을) 쳤다.] (그랬더라면) 설사 보수의 대기대용일지라도, 삼천리나 차이가 났을 것이다." [그대(설두스님)는 이미 만 리 애주(崖州)에 있다.]

[評唱 1]

第二代保壽參前保壽 令參父母未生已前 如何是你本來面目. 如此數年 不能省悟. 一日別保壽行脚去 壽云 "汝且住 當有證入" 令作街坊. 忽於鬧市中見二人相爭 一人勸云 "你輩得如此無面目" 壽於言下大悟. 後前保壽遷化 祝三聖云 "且令作山主 住十年始得開堂" 後三聖作請主令開堂. 開堂日 三聖推出一僧 保壽便打. 且道 他古人意在什麼處.

제2대 보수(保壽)가 전 보수(前 保壽, 제1대 보수)를 참례하자, 부모미생전 본래면목화(父母未生前 本來面目話)를 참구토록 했다. 그래서 (이 화두를 참구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는데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보수와 헤어져 행각을 하려는데, 보수(前 保壽)가 이르기를 "네가 잠시 그만두면, 마땅히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고 하고는, 화주승(街坊)이 될 것을 명했다.

(그리하여 화주를 하고 있는데) 홀연히 시끌벅적한 저자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 한 사람이 타이르며 말하기를 "자네들이 이와 같이 다투니, (자네들) 볼 면목이 없네!" 라고 했는데, 보수가 (이) 말끝에 크게 깨달았다.

뒤에 전 보수가 천화하자, 삼성이 축원하며 말하기를 "만약 산주(山主, 주지)가 되고자 하면, 10년 뒤에 개당(開堂, 주지가 되어 법문을 함) 하시오!" 라고 했다. 뒤에 삼성이 (제2대 보수를) 주지로 청하면서 개당하도록 했는데, 개당하는 날 삼성이 한 스님을 밀어내자 보수가 바로 쳤다. 자, 말해보라! 고인(古人)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제2대 보수(第二代保壽) : 전등록 제12권에 진주 보수 소(鎭州 寶壽 沼, 제 1대 보수) 화상의 법손 2인으로 '여주 서원 사명 선사'와 '제2세 보수 화상' 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삼성혜연(三聖慧然, 생몰 연대 미상): 임제의현의 법사. 의현의 법을 얻은 후 여러 총림에 역참한 뒤, 진주 삼성원에 머뭄.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㊴ 이해의 길 19

불교는 어려운 종교인가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도 좋고 모두 마음에 드는데,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교 공부가 어렵긴 하다. 그런데 붓다 당시에도 그랬을까? 붓다는 자신이 깨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였다. 당시 불교가 인도 전역에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불교가 이처럼 어렵게 된 것일까?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불교 교단은 붓다의 가르침과 계율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20여 개의 부파로 분열된다. 400여 년 동안 지속된 분열은 불교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파불교가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붓다의 말씀인 경(經)에 대한 주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에 대한 해설서를 논(論)이라 하는데, 부파마다 독립적인 논서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이 완성되고 불교의 교리가 체계화된 반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문자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파불교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로 변하게 된다. 특히 출가자 중에서도 지식을 갖춘 엘리트 비구들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붓다의 말씀인 경을 연구하고 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여 개의 부파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적 소양을 갖춘 비구가 승원에서 주목받는 것은 당연했다. 그들은 자기들 부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서 작업에 집중하였다. 이런 전문적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승원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 불리는 아소카왕의 사찰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파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실재론(實在論)을 주장한다. 붓다에 의하면 모든 것은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自性)을 갖춘 독립적 실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부파불교는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있다(有)고 보았다. 그들은 각각의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소를 법(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입장을 '아공법유(我空法有)' 라고 한다. 예컨대 나무라는 존재(我)는 연기하기 때문에 공(空)하지만 나무를 나무이게끔 하는 최소한의 법(法)은 실재한다(有)는 뜻이다. 그들은 이러한 법을 연구하여 75개를 찾아냈는데, 이를 '5위(位) 75법(法)' 이라고 한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5온(蘊), 즉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5온도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대승불교에 이르러 강력하게 부정된다. 〈반야심경〉에서 '5온이 모두 공하다(五蘊皆空)' 고 한 것도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출가자를 중심으로 하며 실재론을 견지하는 부파불교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부파불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불교가 어렵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문제에 집중하였다. 한 종교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학문적이고 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문맹률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학문적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것은 지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붓다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설했다. 이를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 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부파불교는 지극히 어렵고 관념적인 불교로 변했다. 대중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린 부파불교에 등을 돌리고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그 외침이 다름 아닌 대승불교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새 는 지 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대학
정행스님의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 불교의 새로운 상담기법과 실천법 –

각 사찰에서 신도분들과 운영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융합명상 치유상담기법

대상 : 누구나 관심 있는분
• 종교지도자 및 상담사로 창업하실분
• 가족문제 및 내면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
• 마음공부에 부족함을 느끼는분
•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 일이 풀리지 않는 분

문의 : 010-8634-7851(정행스님)

장소 :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 대학 학술관 279호
시간 : 지도자 과정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집중수업
매월 둘째 일요일 10시 ~ 17시
(내담자 접수순 참여)

융합명상 아카데미 천안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17시
종교지도자 우대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3길 37(청수동) 보광사
접수 010-3115-3070 간사 양지우

융합명상 아카데미 동대구
매월 둘째 금요일 시간 미정
주소 대구시 동구 안심로251(서호동) (지하철 반야월역 1번출구 할리스 커피 옆건물 2층)
접수 010-9568-7447

융합명상 아카데미 부산수영
매월 넷째 일요일 오전 10시~17시
주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서로19번길 14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남천역 2번, 4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접수 010-8634-7851

융합명상 아카데미(학마을) 정행 합장